

## 조선 민화 나비를 응용한 의상 디자인 연구

이 미 량\* · 이 종 민\*

안양과학대학 패션뷰티디자인학부, 타워실업\*

## Study on the Fashion Design Applying Pictures of Butterfly in the Korean Folk Paintings

Mi-Ryang Lee<sup>†</sup> and Jong-Min Lee\*

Dept. of Fashion & Beauty Design, Anyang Technical College

Tower Industry Co, Ltd\*

(2006. 7. 10. 접수 : 2006. 9. 2. 채택)

### Abstract

These days, by the accelerated developments of science and industries and the menaces of war and terror, humans have come to have instinct to recur and nostalgia to nature and thereby many art works and designs with natural objectives have begun to be produced. Also the design in 21st century requires creative products based on cultural speciality of the countries. As the examples, we may easily find the images of the countries from visual expressions or products when we get in touch with the products of so called advanced countries in design i. e. U.S.A. Japan, Germany, France, Italy, countries of Scandinavian peninsular.

This study, in such stream of the times, was to express our culture's own originality on clothing design with butterfly that is one of natural thing as the material but limited the boundary to realistic butterflies in folk drawings of the times of Chosun. As for the technique of expression, used digital textile printing for best expression of the fine lines, realistic shapes and peculiar colors of the butterflies in Chosun folk drawings and used diverse materials as materials for printing for diversity of the designs.

Thereby this thesis is purposed to grope the products with superior competitiveness in the world market by presenting the realistic butterflies in Chosun folk drawings as motives with cultural value native to Korea and applying them to clothing designs.

*Key words: butterflies in Chosun folk drawings (조선 민화나비), creative (독창성), digital textile printing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

### I. 서론

질서속의 변화에서 비롯되는 자연의 아름다움은 조형 표현을 위한 무한한 소재가 되어 왔다. 또한 21

세기는 문화적인 특수성에 바탕을 둔 독창성 있는 제품과 디자인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자연물인 나비를 소재로 하여 의상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한다. 나비의 범위는 조선 민화 나비로 제한하였으며, 우리 문화만의

<sup>†</sup> 교신저자 E-mail : imr96@ianyang.ac.kr

독창성을 의상 디자인에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DTP)을 이용해 한국 고유의 문화적 가치를 지닌 모티브를 개발하고 이를 의상 개발에 적용,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론적 연구와 작품 제작 연구로 이루어졌다. 작품 제작 모티브의 이해를 위한 이론적 연구는 조선 민화에 대한 수집, 고찰과 조선 민화 속 나비의 조형성을 분석, 연구하였다. 다음으로 조선 민화 나비를 모티브로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 원단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이용한 의상을 제작하였다.

이를 통해 문화의 원형으로서 조선 민화 나비의 가치와 활용에 주목하고, 나아가 문화적 특수성을 가진 고부가가치 제품을 모색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는 독창적 의상 디자인 개발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 II. 조선 민화의 나비

### I. 조선 민화의 개념 및 특징

#### 1) 민화의 개념

민화는 흔히 낙관이 없는 그림, 제작연대나 작가를 모르는 그림이라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잡화·별화·속화 등으로 불리며 사대부 계층에서 천시되어 오던 그림이다. 보통 벽장문이나 다락문 또는 대문 등에 붙었던 그림, 혼례식·회갑·생일잔치 등에 쓰였던 그림으로 민중 속의 생활감정과 호흡을 같이 한 그림이며 솔직하고 거짓 없는 진솔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그림이 민화이다<sup>1)</sup>.

‘민화’라는 용어를 처음 쓴 사람은 일본인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 1889~1961)이다. 그는 1929년 3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민예품전람회(민속적 회화)라는 의미로 ‘민화’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1937년 2월 일본의 월간 <공예>지에 기고한 ‘공예적 회화’라는 글에서 “민중 속에서 태어나고 민중에 의해 그려지고 민중에 의해 유통되는 그림을 민화라고 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민화의 범주를 ‘창의성보다 실용성이 강조되고 몇 장씩 되풀이 하여 그리는 그림으로서 생활공간의 장식을 주목적으로 하는 민속적인 미와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그림’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야나기 무네요시가 ‘민화’란 용어를 쓰기 이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민화에 대한 개념은 있었다. 이규경(李圭景)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는 여염집의 병풍, 족자 또는 벽에 붙어 있는 그림을 속화(俗畵)라고 칭했다.

우리나라의 민화 연구자인 조자용(趙子庸)은 한국의 모든 회화를 한화(韓畵)라 하고, 이를 순수회화(純粹繪畵)와 실용회화(實用繪畵)로 분류하면서 민화란 넓게 보면 한화로 일컫고 좁게 보면 실용회화를 일컫는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외국에서 민화를 규정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그것을 기준으로 외국과 민화와 한국 민화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추론하였는데, 대체로 민화는 무명성, 실용성, 공예성, 상징성 등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민화는 야나기 무네요시나 구미의 민화관에 끼워 맞출 수 없는 독특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민화에 대한 정의는 김호연(金鎬然)<sup>2)</sup>, 김철순(金哲淳)<sup>3)</sup>, 이우환(李禹煥)<sup>4)</sup> 등이 있다.

1) 윤열수, *민화이야기*, (서울: 디자인하우스, 1995), p. 5.

2) 민화를 ‘겨레그림’이라고 부르며 그것을 ‘우리 겨레의 미의식과 정서를 가치적으로 표현한 옛 그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민화는 민화만이 갖는 표현 방식을 지니고 있는데 그는 이것을 ‘유형(類型)의 형성’과 ‘진채(眞彩)의 미’로 요약하고 있다.

3) 민화를 “한국의호사의 주류에서 벗어난 비전문적인 화공 장인들이 일반 서민층의 그림에 대한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멋대로 그린 어수룩하고 소박하고 꾸밈없는 허드레 그림, 그리 대단치 않은 그림”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동안 한국에서 통용된 민화의 개념은 전문적인 전통 화가들의 작품을 제외한 종교와 민속에 관계된 그림들을 포함한다고 말하고 있다.

4) 민화관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회화관 자체가 사대주의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조선시대 회화의 구조적인 측면과 민화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는 ‘조선의 회화는 예술적인 감상회화와 실용적인 생활화로 대별되는데 감상회화의 예술성만을 중시하고 생활화의 실용적인 측면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통합하여 조선회화를 재구성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조선의 회화>에서 조선화단은 넓은 의미에서 서민출신의 화가가 거의 대부분이며 따라서 양반화가가 관심을 보였던 이념적인 감상회화보다는 실용성이 강한 생활회화가 압도적인 우세를 차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2) 민화의 특징<sup>5)</sup>

민화의 주제 표현은 정통 회화와는 달리 항상 비개인적이고 집단적인 가치감정의 상징형으로 일반화한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인데, 한 예를 들어보면 화조도는 원래 감상용의 회화였으나 민화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음양화합의 남녀 사랑을 기원하는 통속적 동종주술(同種呪術)의 형태로 변모되었다. 표현 기법에 있어서는 되풀이 표현이 특징이며, 민화의 양식적 특징을 결정 짓는 주요소는 다시점, 원근법의 무시, 과거·현재·미래의 동시적 표현, 사물의 상호비례 관계 무시, 각 사물의 개별적 색채 효과의 극대화, 사물의 평면화, 대칭형·나열형 구도 등 일곱 가지를 들 수 있다.

민화의 다시점은 정통 회화에서 볼 수 있는 '나'와 '우주'와의 합일적 관계에서 비롯된 시형식의 일부를 반영하는 것이면서 보다 정확하게는 '나'라고 하는 개별적 주관성이 소실된 데에서 비롯된 주체와 대상과의 미분화 상태에서 나온 다시점 현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화는 정통 회화에서 보다 훨씬 자유분방한 시점의 이동현상을 한 화면 속에서 드러내 보이고 있다. 좌우, 상하로 거침없이 시점을 이동해 가면서 사물을 포착해 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한 그림 속에 여러 개의 시점이 동시에 존재함으로써, 그려진 대상물들은 현실적인 물체감 위에 여러 상황의 관념적 공간들이 동시에 펼쳐져 보이는 신선한 복합상을 연출하게 된다.

민화에서 원근법이 무시되는 것은 그 생각의 뿌리가 '나'와 '자연'과의 대립적 거리감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 됨의 마음자리인 까닭에 '나'를 '대상'의 밖에다 놓고 바라보게 하는 원근화법은 존재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민화에서는 사물의 상호비례 관계가 무시되고 표현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림의 의미 내용이 중시하는 바의 강조점에 따라 사물의 크기가 유달리 커지든가 작아지게 그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물의 크기는 원근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정해진다.

또한 각 사물의 개별적 색채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표현되었으며, 이는 원색이 발산하는 감각적 쾌감을

좋아한 민중들의 감각적 성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상당한 지적 수련의 결과로 나올 수 있는 색조(色調)의 회화, 즉 색채간의 조화를 고려하는 전체의 색조에 의거한 증감의 원리 등은 적용되지 않았다.

민화가 평면적으로 그려진 이유는, 실제감 있게 그린다는 것이 중요시 되지 않았던 점, 되풀이 그려지는 과정에서 평면적인 처리가 보다 묘사하기 쉬웠던 점, 그리고 입체감을 내기 위한 명암 표현은 색채의 선명도를 현저히 떨어뜨려 강렬한 색채 효과를 주는 데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민화에 대칭형·나열형 구도가 많은 이유는, 첫째 대칭형 구도는 그것이 누구나 쉽게 취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균형구도이기 때문이며, 둘째 나열형 구도는 사물을 겹쳐지게 그리는 것보다, 하나하나 독립시켜 그리는 것이 민중이 지닌 통속적인 시각적 안전성의 관념에 합치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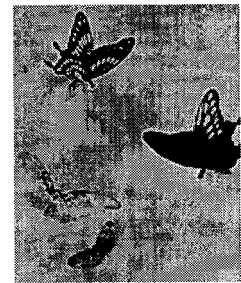
## 2. 조선 민화 속 나비의 조형적 특징

민화는 전문적인 화가보다는 그림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비전문적인 화가가 그렸기 때문에 정형화된 화법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오늘날 민화를 애호하는 사람들은 민화만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자유와 독특함, 기발한 표현 기법 등을 선호한다. 그러나 자유분방하고 제멋대로인 것처럼 보이는 민화에서도 구성 원리나 표현 방법에서 어느 정도의 일관성을 찾을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민화에서 등장하는 나비를 현존하는 자료를 통해 수집<sup>6)</sup>하여 특성에 따라 분석했다. 분석



〈그림 1〉 초충도 민화.  
(조자용, 김철순).



〈그림 2〉 초충도 민화.  
(조자용, 김철순).

5) 임두빈, *한국의 민화*, (서울: 서문당, 1993), pp. 18-20.

6) 민화는 자료가 많으므로 *한국의 민화* (임두빈 저)와 *민화 1: 下* (조자용, 김철순 저)에서 발췌하는 것으로 제한을 두었다.



〈그림 3〉 꽃과 나비.  
한국의 민화 (임두빈).



〈그림 4〉 화조도 민화.  
(조자용, 김철순).

대상은 총 33점이며, 이때 백접도, 초충도, 화조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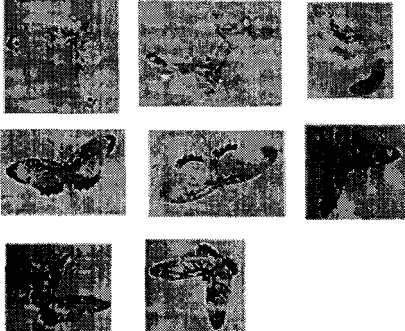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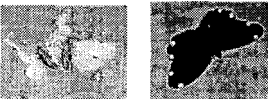

경우, 민화 속에 등장한 나비 자체만을 분석대상으로 제한하여 형태, 선, 색에 대하여 특징을 분석하였다.

1) 형태와 선

민화 속 나비의 표현 형태는 표현되는 형태선이 사실적인 나비와 표현되는 형태선이 단순화된 나비 두 종류로 크게 구분할 수 있었다. 자료 총 33점 중 전자는 14점(41.17%)이고 후자는 15점(44.11%)이었으며 기타로 4점(14.70%)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민화 속 나비그림 나비를 보면 어느 정도의 단순화가 되어 있지만 날개의 시맥이라든지 명암, 색 등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실제 나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날개 끝 모양이 예각을 가지며 날개에 꼬리모양의 긴 돌기를 가지는 호랑나비과의 나비와 색채가 선명하고 날개 전체에 아름다운 무늬를 가지고 있는 네발나비과의 나비들이 주 모델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나비선을 보면 매우 선이 가는 섬세한 필선

〈표 1〉 조선 민화 사실적 나비의 조형적 특징

조선 민화 사실적 나비	형 태	조형적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몸집이 크며 아름다움.</li> <li>• 날개에 꼬리 모양의 긴 돌기를 가지고 있어 화려함.</li> <li>• 날개 끝 모양이 예각을 가짐.</li> <li>• 날개와 날개 사이 각도가 작음.</li> <li>• 검은 색상이 많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린, 바이올렛, 화이트 등의 색상에 날개 끝과 시맥에 블랙으로 그라데이션되어 있어 화려하면서도 섬세함.</li> <li>• 날개와 날개 사이의 각도가 큼.</li> <li>• 밑날개 쪽에 여러 개의 뾰족한 돌기가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날개와 날개 사이의 각도가 큼.</li> <li>• 돌기부분이 없음.</li> <li>• 전반적으로 어느 한부분이 도출되거나 각이 지지 않아 라인이 부드러움.</li> </ul>

을 가지고 있어 나비의 더듬어, 입, 세 쌍의 다리마저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렇게 표현된 나비를 사실적 나비로 명명하고 사실적 나비의 조형적 형태와 특징을 <표 1>에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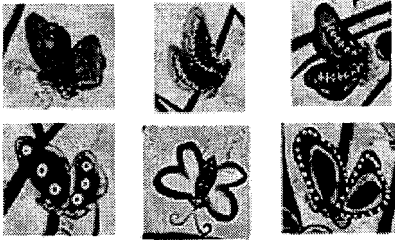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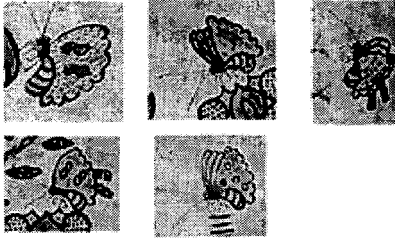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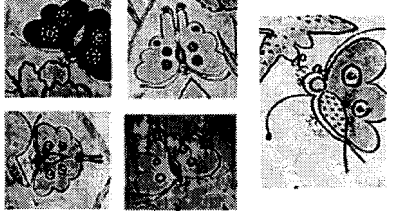
이에 비해 민화 속 나비그림 나비는 날개의 잎맥이 없든지 다리가 생략되는 등 형태가 매우 간결화되고 왜곡되어 있다. 왜곡이란 자연스러운 형과 형태를 무시하여 의도적으로 그것을 변화시키고 과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나비의 변형과 왜곡으로 실제 모델이 되는 나비를 추측하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나비선은 즉흥적이면서 한번에 그린 듯한 선은 두께

가 일정치 않아 두박하지만 빠른 속도감을 느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렇게 표현된 나비를 해학적 나비로 명명하였다.

해학적 나비의 표현 특징은 그 형태의 단순·왜곡 단계에 따라 <표 2>에 정리한 것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유형 1은 날개 형태나 무늬에서 단순 변형이 조금 진행된 것으로 더듬어와 다리 세 쌍 모두 그려져 있고 날개 사맥 역시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

유형 2는 유형 1에서 날개 형태와 무늬가 좀더 단순화가 진행되었고 몸 부분도 단순·왜곡화 되었으

<표 2> 조선 민화 해학적 나비 조형적 특징

	조선 민화 해학적 나비	형태, 표현적 특징
유형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날개 형태 무늬에서 단순 변형이 조금 진행된 상태.</li> <li>• 더듬어, 다리 세 쌍이 모두 있음.</li> </ul>
유형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태 1보다 날개형태와 무늬가 더 단순화 됨.</li> <li>• 몸도 단순화 됨.</li> <li>• 더듬어, 다리 세 쌍은 모두 있음.</li> </ul>
유형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몸, 날개 모두 단순 왜곡.</li> <li>• 세 쌍의 다리 생략됨.</li> <li>• 윗날개, 밑날개의 구분이 있음.</li> </ul>
유형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날개의 구분마저도 없음.</li> <li>• 날개 안에 몸이 그려져 있음.</li> <li>• 세 쌍의 다리 생략됨.</li> </ul>

나 더듬이와 세 쌍의 다리는 여전히 생략되지 않은 채 그려져 있다.

유형 3은 몸·날개 모두 단순·왜곡 되었고 세 쌍의 다리는 생략이 되었으나 아직 윗날개, 밑날개의 구분은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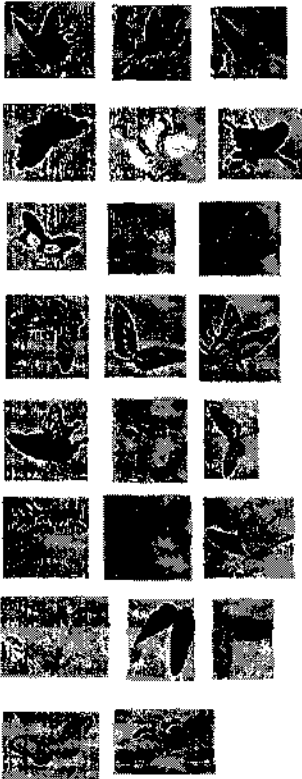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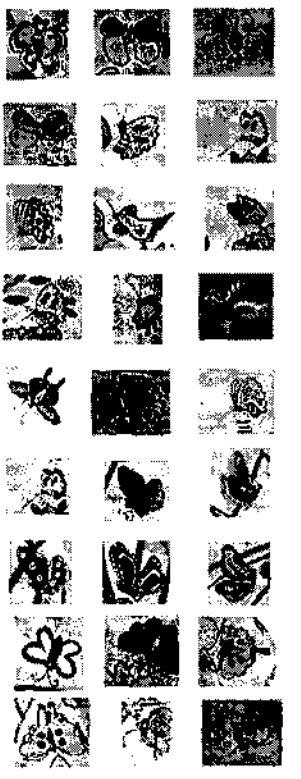
유형 4는 유형 3에서 날개의 구분마저 없어지고 몸에 날개가 달려 있지 않고 날개 안에 몸을 그리는 등의 왜곡이 심하게 된 형태이다.

나비를 보는 각도와 그려진 구도면 또한 크게 다른데 사실적 나비는 정면, 측면, 45° 등의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이는 대로 자연스러운 나비를 크고 작게 그렸지만, 해학적 나비는 정면 아니면 측면에서 바라

보는 두 가지 정도의 정적인 모습만 보이고 구도 역시 같은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크기의 나비가 대칭을 이루거나 나비가 많더라도 한 줄로 쌓아 올린 구도를 가졌다. 선을 보면 대부분의 민화는 선으로 형태의 외곽을 그리고 그 안에 색을 칠했다. 그러나 짙은 색으로 경계를 삼아 형상과 형상, 색과 색의 마주침으로 줄을 긋지 않고 그린 작품들이 민속화, 특히 무속화에 많다. 선묘 중심의 동양화법에서 완전히 탈피한 셈이다.

선을 두르지 않고 물감을 자연스런 번짐으로 형태를 만드는 몰골법이라든지 바람의 기법, 선 대신 점을 찍기도 하고 또 어떤 그림은 산이나 바위의 준법

〈표 3〉 조선 민화 나비의 형태적 특징

	사실적 나비	해학적 나비
이미지		
형태	사실적	추상적(생략, 간결하고 왜곡)
선	가늘고 섬세함	두께가 일정치 않지만 매끈하고 속도감 있는 선
시점	다양함	측면, 정면
중합	중후하고 고급스러움	쾌활하고 명랑함

(綴法)을 정통화에서 빌어 오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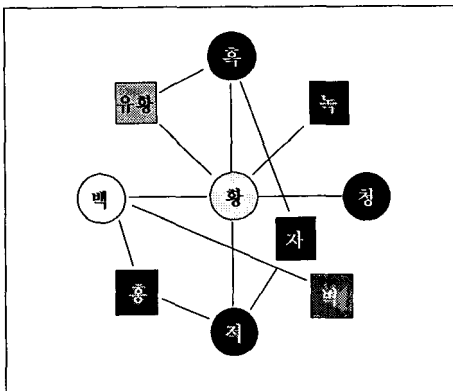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사실적 나비는 색감과 그 표현 기법으로 인해 중후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사실적 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시각, 크기 그리고 자연스러운 구도로 딱딱하지 않으면서 잔잔한 울동감마저 느끼게 한다.

해학적 나비는 즉흥적이면서 속도감 있는 선으로 형태를 왜곡함으로 추상적인 면을 가지나 그에 인해 쾌활하고 명랑함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 2) 색

사실적 나비의 색은 자연에서 보이는 나비 색상을 썼으며 그중에서도 음양오행 사상이 깃든 오방색을 주로 따랐다. 오방에는 각 방위에 해당하는 5가지 정색이 있고, 각 정색의 사이에는 5가지 간색이 있다. 정색의 동쪽은 청색, 서쪽은 백색, 남쪽의 적색, 북쪽은 흑색, 중앙은 황색이며, 이 중 청·적·황색은 양의 색이고 흑과 백은 음의 색이다. 간색으로는 동방의 정색과 중앙의 황색사이에 녹색이 있고, 동방의 청색과 서방의 백색 사이에는 벽색, 남방의 적색과 서방의 백색 사이에는 홍색, 북방의 흑색과 중앙의 황색 사이에는 유향색, 북방의 흑색과 남방의 적색 사이에는 자색의 5가지가 있으며 모든 간색은 음의 색이다(그림 5)<sup>7)</sup>.



<그림 5> 오방색의 정색과 간색의 범위.

이 오방색 중에서도 사실적 나비는 흑색, 백색, 황색, 녹색, 자색, 유향색 등을 사용하며 음양의 조화를 살렸다.

흑색은 생명의 종식을 상징하며 음기가 강한 곳이다. 흑은 실체를 상징하는 색으로 빨간색을 내포하고 다시 빨간색은 다시 노란색을 내포하는 고리가 되는 색이다. 그리고 북방의 흑색은 만물의 생사를 관장하는 신을 뜻한다.

백색은 태양이 지는 곳으로 만물의 운행상 정지를 상징하며 음기가 강한 곳이다. 백색은 소(素)·지(紙) 색이라고 하며, 결백과 진실을 의미한다. 흰옷은 무색·소색의 이미지이며 무색의 인간생활이 공수래 공수법(空手來空手法)의 사상과 일치하는 즉 자연에의 동화이며 그 자체인 것이라고 여겨왔다. 그래서 백색은 자연에 귀착하는 것, 자연과의 동화이며 결과적으로 원색에서 탈퇴하여 채색을 금하는 사고방식으로 발전되었다.

황색과 그에 속하는 유향색은 광명을 상징하는 양기의 정화로 태양과 가장 가까운 곳이다. 황색이 주술적 의미에서 사용된 것을 살펴보면 설날, 출산날, 제삿날에 문전에 황토를 뿌려두는 것이라든지 또는 기전에 황토를 놓는 것, 왕이 성묘할 때 황토를 도로변에 뿌린다는 것 등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황색민속의 연장이라고 생각되며 종교적 표현으로는 빛과 존경과 신앙을 암시한다. 황색은 오행설에서 흙을 상징하며, 황토는 비옥함을 나타낸다. 결국 황색은 생명의 원천이며 생산과 재생산을 상징한다.<sup>8)</sup>

녹색은 식물의 색이며 업록소의 색이다. 빛이 땅에 닿아 물과 공기의 해력으로 성장하는 생기가 녹색이며, 이 말에서 연상되는 상징어는 풍요로움, 젊음, 신선함, 희망, 평화, 안전, 이상, 안락 등이 있으며, 동·서양을 통해 거의 같은 내용으로 생각하고 있다.<sup>9)</sup>

자색은 고대의 품위를 간직한 신비스런 색이며, 현대인에게는 신기로운 색으로 비일상적이고, 초현실적인 이미지를 나타내주는 색이다.<sup>10)</sup>

이 모든 의미를 가진 색으로 표현되는 사실적 나

7) 오희선, 김숙희, 재미있는 색이야기. (서울: 교학연구사, 2001), p. 127.

8) 김은지, "민화의 색채표현 기법과 채색재료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pp. 16-19.

9) 하용득, 한국의 전통색과 색채심리. (서울: 명지출판사, 1989), p. 225.

10) Ibid., p. 181.

비는 채색에서도 <그림 9> 및 <그림 12>에서 보듯이 흑색에서 녹색으로, 황색으로, 자색으로 넘어 갈 때 그 경계선을 명확하게 구분시키지 않고 겹쳐서로 그라데이션 효과를 살려 보다 나비의 사실적 표현을 나타내주고 있다.

해학적 나비에 주로 쓰인 색은 단순하며 색과 색의 경계에 흑색선으로 구분을 지어 명료하긴 하지만 평면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 III. 조선 민화 나비를 응용한 작품 제작

본 연구의 작품 컨셉은 세계 보편성을 가지면서 우리 문화가 스며있는, 조선 민화 사실적 나비를 모티브로 하여 고풍스런 이미지를 가진 새로운 디지털 프린팅 소재를 창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고급스러우며 중후한 작품을 표현했다.

타겟으로는 복합적이고 상반된 현실 속에서 독창적 디자인을 추구하는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의 전문직 종사자와 패션리더로 정하고, 더 나아가 우리 문화를 기반으로 세계 속에 차별화된 독창적 의상 개발을 위해 스타일을 제안했다. 본 연구 작품의 주 타겟 그룹은 대중주의, 확립화에 회의를 가지고 개인주의, 능력주의에 대한 가치를 중요시하며 창의적이고 문화가 갖는 상품을 가치 있게 평가할 수 있는 그룹이다.

본 연구 작품은 조선 민화 나비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실적 나비를 모티브로 채택하였다. 이는 사실적 나비가 섬세한 선, 오방색을 기본으로 한 색, 우아한 사실적 형태감 등을 가지고 있어 중후하고 고급스러운 스타일을 제시하기에 보다 적합하기 때문이다. 이를 가지고 포멀한 정장 테마 I 과 세미캐주얼 테마 II 의 두가지로 테마를 나누어 진행하였다.

연구 작품은 총 8발을 진행하였으며 전체작품의 계획내용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스타일을 보면 테마 I 로 진행된 연구 작품은 <그림 7>~<그림 10>이며, 테마 II 로 진행된 연구 작품은 <그림 11>~<그림 14>이다.

색상은 사실적 나비와 함께 조선 민화 나비의 오랜 된 느낌까지도 가진 골드엘로우계 나비 프린팅을 사용하여 고급스러우며 중후한 느낌을 테마 I, II 에 주었다.

테마 I 은 main color로 클래식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 골드엘로우를 05 F/W 트렌드 컬러인 블랙, 브라운과 함께 매치시켰고 무거운 느낌을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바이올렛, 골드엘로우 나비 프린팅을 광택있는 공단 소재로 안감을 하여 포인트를 주었다.

테마 II 에서는 골드엘로우 나비 프린팅과 아이보리, 바이올렛, 그린, 토틸루, 브라운 등을 main color와 sub-color로 적절히 매치하여 캐주얼한 색상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주소재는 조선 민화의 사실적 나비를 모티브로 재구성하여 DTP 기법으로 프린팅 한 새로운 소재를 필요한만큼 생산하여 사용하였다.

먼저, 테마 I 에서는 DTP로 사실적 나비를 프린팅한 트월실크, 헤도사, 워싱과 크링클 처리 가공이 된 양가죽과 쉼무, 손니트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소재 매칭을 하였다. 특히 크랙 무늬가 있는 헤도사에 DTP를 함으로서 기존의 크랙 무늬와 나비 프린트가 한데 어우러져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효과를 보았다.

테마 II 에서는 캐주얼한 느낌을 살릴 수 있게 DTP 바닥소재로 소프트한 인조스웨이드, 트월실크, 털길이가 다르게 가공된 벨로아를 사용하였고 이와 함께 자가드 직기, 쉼무, 크링클 잡힌 벨벳, 골덴, 손니트, 실크쉬폰을 매치하였다.

안감은 두 테마 공통으로 색감있는 솔리드 공단과 프린팅 한 공단을 필요에 따라 배색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 IV. 결론 및 제언

현대 사회에는 산업과 과학이 발달하면서 컴퓨터나 통신을 통해 신속하게 전 세계의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의상 문화에 더 많은 다양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기계적이고 확립화된 현대사회에 지친 현대인들은 자연친화적인 것을 선호하게 되었으며 의상에서도 자연친화적 디자인은 세계적 추세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자연물의 하나인 나비를 소재로 하되, 그 범위를 조선 민화 속 사실적 나비로 제한하여 우리 문화만의 독창성을 의상 디자인에 표현하고자 했다. 표현 기법으로는 조선



〈표 4〉 작품계획표

테 마	작품 번호	모티브	소 재	색 상	기 법	아이템	실루엣
I	I	조선 민화 사실적 나비	해도사 양가죽 공단(안감) 폭스털 트리밍		DTP 기법	투피스 (Jacket+Skirt)	
	II	조선 민화 사실적 나비	울100% 손니트 해도사 라쿤털 칼라		DTP 기법	투피스 (Knit+Skirt)	
	III	조선 민화 사실적 나비	양가죽 트월실크 스웨이드 공단(안감)		DTP 기법	쓰리피스 (Jacket+Blouse +Skirt)	
	IV	조선 민화 사실적 나비	트월실크 양가죽 토끼털 공단(안감) 숨패딩		DTP 기법 누비 기법	투피스 (Coat+Pants)	
II	V	조선 민화 사실적 나비	스웨이드 트월실크 공단(안감) 라쿤털 트리밍		DTP 기법 기계주름 기법	투피스 (Vest+One-piece)	
	VI	조선 민화 사실적 나비	트월도비직기 벨벳 공단(안감) 실버 폭스털 트리밍		DTP 기법	쓰리피스 (Jacket+Top +Skirt)	
	VII	조선 민화 사실적 나비	울 100% 손니트 벨벳 인조 스웨이드 공단(안감)		DTP 기법 아플리케 기법	쓰리피스 (Knit-cardigan +Top+Pants)	
	VIII	조선 민화 사실적 나비	울 97% 골드메달 3% 의 손니트 실크쉬폰 16G 콜덴 스판 공단		아플리케 기법	쓰리피스 (Knit-cardigan +Top+Pants)	



〈그림 6〉 작품 I.



〈그림 7〉 작품 II.



〈그림 8〉 작품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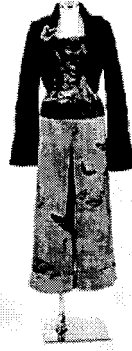
〈그림 9〉 작품 IV.



〈그림 10〉 작품 V.



〈그림 11〉 작품 VI.



〈그림 12〉 작품 VII.



〈그림 13〉 작품 VIII.

민화 사실적 나비의 섬세한 선과 사실적 형태, 그리고 고유의 색을 가장 잘 표현하기 위해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을 사용했고 디자인의 다양성을 위해 프린팅 소재로 여러 가지 소재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 민화 나비의 조형성의 분석을 새롭게 시도한 결과, 사실적 나비와 해학적 나비로 구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사실적 나비의 조형성 즉, 섬세한 선, 사실적 형태, 오방색에 따른 정교하게 채색된 색 등이 중후하고 고급스런 디자인의 모티브로 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오래된 조선 민화 나비의 색채를 DTP를 이용하여 그대로 재현한 결과, 조선 민화 속 사실적 나비의 섬세함과 오래된 고풍미의 색감을 표현할 수 있었다. 또, 나비가 가진 블랙, 바이올렛, 브라운, 톨블루 등을 작품 디자인 계획 단계에서 서브컬러로 사용하여 작품을 다양화 시켰다.

셋째,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 소재의 색상으로 주로 쓰였던 백색에서 벗어나 무늬가 있거나 색감 있는 소재에 프린팅 한 결과 일차원적인 프린팅 느낌이 아닌 깊고 풍부한 색감의 프린팅 소재를 얻을 수 있었다.

넷째,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 소재로서 트윈실크, 실크쉬폰에서부터 벨벳, 인조 스웨이드, 해도사, 공단 등의 각 질감이 다른 소재에 같은 색상의 조선 민화 나비를 DTP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광택이 있는 매끈한 공단은 부드럽으면서 화려한 이미지가, 무광택의 트윈실크는 차분하면서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해도사는 해도사가 가진 거친 표면과의 만남으로 오래된 벽화 느낌의 고풍스런 이미지가, 스웨이드는 매트하면서 부드러운 이미지가, 다른 길이로 사링된 벨로아는 자재의 다른 결의 길이에 따라 여러 가지 색감이 나는 다양한 이미지가 창출되어 소재 표현 영역을 확대하였다.

다섯째, 조선 민화 속 사실적 나비를 공통된 모티브로 사용하더라도 각각의 옷의 패턴에 맞게 자유로이 나비를 재구성하여 작품에 독창성과 다양성을 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우리 문화적인 특수성을 가진 독창성을 표현하기 위해 방법론적 측면에서 조선 민화의 사실적 나비를 모티브로 착안하여 새로운 프린팅 소재를 개발하였으며, 다양한 소재, 색상을 배치하여 의상에 적용시킴으로써 고급스러운 느낌의 포멀한 스타일과 세미 캐주얼 스타일의 작품을 개발하였다. 이로써 우리 문화가 스며있는 독창적인 의상제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는 향후 세계 경쟁력을 가진 다양한 제품 개발에 고무적 현상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작품 제작 과정에서 나타난 DTP 원단 출력기의 칼라 매칭 시스템의 개선점, 대량 생산 시스템과의 가격 경쟁력 열세 등은 향후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한국 문화적 소재로 조선 민화 사실적 나비에 국한되지 않고 조선 민화 해석적 나비뿐만 아니라, 문화적 측면의 디자인으로 우리는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른 디자인과 문화적인 보편성의 관계를 항상 생각하여 고부가 가치의 많은 디자인을 개발, 상품화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영학 (1993). *민화*. 서울: 대원사.
- 김종태 (1998). *한국화론*. 서울: 일지사.
- 김철순 (1991). *한국민화논고*. 서울: 애경산업사.
- 김호연 (1982). *한국의 민화*. 서울: 일지사.
- 경노훈, 윤민희 (1999). *디자인 문화와 생활*. 서울: 예경.
- 데이비드 A. 라우어 (1996). *조형의 원리*. 이대일(역). 서울: 예경.
- 박종서 (2000). *실용색채학*. 서울: 글항.
- 야나기무네요시 (1994). *조선과 예술*. 이진길(역). 서울: 신구문화사.
- 윤열수 (1997). *한국 민속의 이해*. 국립민속박물관: 태웅그래픽.
- 윤열수 (1995). *민화이야기*. 서울: 디자인하우스.
- 이영수 (1998). *조선시대의 민화*. 서울: 예원.
- 이우환 (1997). *이조의 민화*. 서울: 열화당.
- 이원복 (2005). *화화*. 서울: 솔출판사.
- 임두빈(1993). *한국의 민화*. 서울: 서문당.
- 오희선, 김숙희 (2001). *재미있는 색 이야기*. 서울: 교학연구사.
- 조자용 (1970). *한국민화의 멋*. 서울: 브리태니커사.
- 조자용, 김철순 (1992). *민화*. 서울: 웅진출판사.
- 하용득 (1989). *한국의 전통색과 색채심리*. 서울: 명지출판사.
- 허균 (1997). *뜻으로 풀어본 우리의 옛그림*. 서울: 대한교과서.
- 허영환 (1995). *동양미의 탐구*. 서울: 학고재.
- 김지연 (1999). "한국전통미를 응용한 복식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경 (2000). "한국민화의 책거리 그림을 응용한 의상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 (2004). "현대 패션에 나타난 한국적 디자인 표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지 (1994). "민화의 색채 표현 기법과 채색재료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경 (2003). "나비 날개 모티브를 응용한 직물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지현 (1999). "조선조 민화를 응용한 의상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주 (2003). "나비의 이미지를 표현한 도자조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지연 (2005). "조선 후기 목가구의 나뭇결 이미지를 응용한 의상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혜원 (2000). "누비를 응용한 의상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준화 (1999). "한국 민화에 있어서 꽃그림을 응용한 의상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연제 (2002). "한국 민화를 응용한 의상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현순 (1983). "조선시대 초충화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승현 (2002). "조선시대 매화문을 응용한 복식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진경 (1999). "조선시대 민화를 중심으로 한 현대사수의 조형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허진영 (2005). "나비의 이미지를 응용한 의상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